

SNK,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재택근무 전환”

- SNK인터랙티브, 지난 18일부터 전직원 재택근무 돌입
- SNK “업무 진행 이상 없어...유연하게 대처할 것”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하면서 카카오, 네이버, SKT와 더불어 SNK도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지난 17일부터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자 SNK는 경영진의 결단으로 18일 오전부터 즉시 ‘전사 재택근무’에 들어 갔다.

SNK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지난 3월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 전사 재택근무를 결정하게 됐다”며 “IP (지적재산권)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차질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재택근무 기간 중에도 메신저, 화상회의 솔루션 등 실시간 디지털 협업 도구를 적극 활용해 업무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한편 글로벌 게임 업체이자 IP사업을 영위하는 SNK는 최근 중국의 대형 영화 제작사와 IP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2022년을 목표로 3D 애니메이션 영화제작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끝>

<자료 문의>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010-5477-0979 / skchun@snkcorp.co.kr)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이은수 사원 (010-4491-7537 / eslee@snkcorp.co.kr)

<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